위기설 퍼진 신흥국·남유럽국 여신·투자 등 155억불, 0.4%선

〈익스포져〉 〈총자산대비〉

금감원 "국내금융사 큰 영향 없다"

신흥국 금융위기설의 중심에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등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신흥국 금융불안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지만 않는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전체 대외 익스포져는 2335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회사 총자산의 6.7% 수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3.6% 늘었다.

외화 유가증권 투자가 48.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외화대출(45.8%)과 외화지급보증(5.9%)이 그 뒤를 이었다. 외화 유가증권 투자는 유럽지역, 외화대출은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늘었다.

권역별로는 은행의 익스포져가 58.6%를 차지하고 ▲보험(36.3%) ▲증권(4.7%) ▲여전사(0.4%) 등의 순이다.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4개 취약 신흥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는 132억 달러로 전체 익스포져의 5.6% 수준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와 신청 가능성이 높아진 터키에 대한 익스포져는 13억7000만 달러로 전체 익스포져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4개 남유럽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는 23억1000만 달러로 전체 익스포져의 1.0% 수준이다. 이 중 이탈리아에 대한 익스포져는 1억6000만 달러로 전체 익스포져의 0.1%다.

〈4개 취약 신흥국 및 남유럽 국가 익스포져 현황(2018/3월말 기준)〉 (단위 : 억 달러, %)

구분		잔액	비중
신흥국	아르헨티나	1.5	(0.1)
	터키	12.2	(0.5)
	브라질	23.9	(1.0)
	인도네시아	94.4	(4.0)
소계		132.0	(5.6)
남유럽	이탈리아	1.6	(0.1)
	스페인	10.0	(0.4)
	그리스	10.8	(0.5)
	포르투갈	0.7	(0.0)
소계		23.1	(1.0)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4개 취약 신흥국과 남유럽 국가의 익스포져는 국내 금융회사 총자산의 0.4% 수준으로 해당 국가의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는 한 감내 가능한 규모"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외 익스포져의 특정국가 편중 등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시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회식, 근로시간 포함 안돼… 접대, 사전승인 필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시간 단축 앞두고 판단기준 제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긴급 주요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과 관련해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해외출장 시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에 포함할지 판단한다는 기준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으로 제시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노동시간으로 볼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에서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대기, 교육, 출장, 접대 등의 시간에 관해서도 관련법과 판례 등을 토대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노동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돼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작년 12월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노동부는 교육시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훈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라 노동시간 여부를 판단하지만, 계약이 없다면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노동이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출장의 경우 8시간 등으로 정해지는 '소정 근로시간'이나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노동부는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외 출장도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의 기준을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회식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가공식품 가격 상승… 콜라 1년새 9%↑

소비자원, 가공식품 판매값 분석
즉석밥 8.4%·어묵 7.1% 상승

콜라와 즉석밥 등 가공 식품 가격이 1년새 최대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5월 다소비 가공식품 30개의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콜라(9.0%)·즉석밥(8.4%)·어묵(7.1%)·설탕(6.8%)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냉동만두(-10.7%)·된장(-7.0%)·햄(-2.6%)·맛살(-1.2%) 등은 하락했다.

소비자원은 즉석밥·시리얼·국수·밀가루·라면 등 '곡물가공품'이 주로 상승했으며, 햄·소시지·치즈 등 '낙농·축산가공품'의 가격은 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전월과 비교해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맛살(1.6%)·냉동만두(1.4%)·햄(1.1%) 등 11개였고, 하락한 품목은 된장(-3.4%)·스프(-2.2%)·콜라(-1.9%) 등 14개였다.

밀가루·라면 등 5개 품목은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맛살과 냉동만두는 올해 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된장·스프의 경우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의 총 구입비용은 대형마트가 평균 11만646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다음으로 전통시장(11만9099원), SSM(12만4223원), 백화점(13만1493원) 순이었다.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11.4%, SSM보다 6.2%, 전통시장보다 2.2%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의 경우 30개 품목 총 구입비용이 전월에 비해 하락했으나, SSM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생필품 가격정보를 주간단위로 제공하고 있다"며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산업부, 6월 수출기업 무역보험 특별지원

단기수출보험 한도·보험료 우대

정부가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6월 한달간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남방·신북방 및 신흥시장 진출 시 단기수출보험 한도 및 보험료를 우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김선민 산업부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조선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 및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6월 수출여건을 전망하고 업종별 수출진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무역정책관은 "올해 1~5월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했고 3~5월까지 3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6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와 지난해 6월 대규모 선박 수출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플러스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외적으로도 미-중, 미-유럽연합(EU)간 무역통상 갈등 고조를 비롯한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및 신흥국 경제 취약성 증대 등이 우리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역시 이달 수출 증가세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2016년 수주량 감소 영향으로 선박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조업일수 영향이 있는 일반기계·자동차·섬유 등의 수출도 감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최신웅 기자

내달 13일까지 '한국농촌계획대전'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촌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제16회 한국농촌계획대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전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7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한국농촌계획대전의 주제는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농촌중심지 만들기'이다.

공모 대상지는 농촌마을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농식품부 핵심 지역개발사업인 20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각 도별 1~3개소(전국 15개소)다.

공모 심사는 농촌계획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작품설명서·패널 심사와 작품발표심사 등 2단계로 진행하며 총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1점, 농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우수상(2점, 농촌진흥청장 청장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 원, 장려상(4점, 한국농촌계획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 원 등 총 1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입선작(다수, 한국농촌계획학회 학회장상)에게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우수작 및 입선작의 전시와 시상식은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농촌건축대전 수상작과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최신웅 기자